

현장과 시각

‘경제’ 부시장에 거는 기대



정후식

사회1부 부장

광주시가 지난 10일 조직 개편과 함께 경제부시장직을 도입해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정무부시사의 대외 명칭을 경제부시장으로 바꾸고 그 산하에 도시마케팅본부와 경제산업국, 투자유치본부 등을 배치해 조직을 경제활성화 위주로 재편했다.

이에 따라 각종 국제 행사 유치와 2009 광엑스포 개최, ‘광주·전남 방문의 해’ 사업 등 관광진흥, 경제정책·산업육성·고용창출·투자유치 등의 업무를 지휘할 실질적인 권한이 경제부시장에게 부여됐다. 시의 핵심 정책이 경제부시장의 양 어깨에 놓이게 된 것이다.

당장 결재라인에도 변화가 생겼다. 이들 업무에 대한 내부방침 결정은 경제부시장이 결재하도록 했다. 다만 법적·대외적 중요 정책결정에는 행정부시장의 협조를 거치도록 했다. 현행 지방자치법에는 정무직 부단체장의 업무 범위가 제한돼 있기 때문이다.

초대 경제부시장은 김운석 정무부시장이 그대로 맡게 된다. 시는 국고 예산 확보와 투자유치 등을 위해 민선 3기부터 기획예산처 출신의 ‘예산통’ 전문가를 영입해왔으며 지난해 3월 취임한 김 부시장은 별도의 산하 조직도 없이 이들 업무를 추진해왔다.

성과도 적지 않았다. 차기 정부로 넘어갈 땐 했던 2013년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국내 유치 도시 확정이나 국립 중앙도서관 분관, 문화콘텐츠 기술연구원 유치, 1조6천억원 규모로 늘어난 국비 예산 확보 과정에서 박광대 시장을 적극 보좌해 발군의 능력을 보여줬다는 게 내부의 평가다.

하지만 역할과 권한이 늘어난 만큼 풀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우선 4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2013년 하계U대회 광주 유치가 급선무다. 김 부시장은 경제부시장으로서 첫 행보를 10~12일 스포츠마케팅 대행사와 유치전략 협의를 위한 일본 방문으로 시작했다. 지역민의 유치 열기를 이끌어내는 것도 중요하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신재생에너지특별대책 조성, 연구·개발(R&D)특구 육성 등 지역 경제·산업 관련 공약을 현실화·구체화시키는 것도 숙제다. 국내외 기업 유치 못지 않게 원자재값 상승과 환율 불안에 시달리는 지역 중소기업에도 관심을 갖고 ‘중소기업 도우미’ 역할을 해내야 한다.

하지만 정무직 부단체장의 업무 분장 규정이 바뀌지 않을 경우 법적으로는 정무부시장의 역할 확대가 힘든 만큼 국회도 급변하는 행정수요에 걸맞게 계류중인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서둘러 처리해줘야 한다.

최근 각 지자체들은 앞다퉀 경제 부단체장직을 신설, 경제살리기에 ‘올인’하고 있다. 충남과 충북 등 10개 시·도가 정무부시장·부시에게 정무적 업무 외에 경제·환경 업무를 수행토록해 ‘경제’부단체장간 경쟁도 주목거리다. 실현대에 오른 광주시 경제부시장의 활약을 기대해본다. /who@kwangju.co.kr

뉴햄프셔 예선 ‘스킨십’이 승패 갈랐다

힐러리, ‘역전의 눈물’ 활용 대면접촉 주력
오바마, 투표일 학생들과 미팅 한차례뿐

제44대 미국 대통령 선거를 향한 민주당 후보경선에서 초반 ‘오바마 돌풍’을 잡은 힐러리 클린턴(뉴욕) 상원의원의 승리 요인은 ‘스킨십’이라고 전문가들이 13일 분석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지난주 뉴햄프셔 프라이머리(예비선거)에서 버락 오바마(일리노이) 상원의원이 2위로 내려앉은 것은 유권자와의 대면접촉 부족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힐러리는 ‘역전의 눈물’을 심분 활용, 1대1 접촉에 주력한 결과 오바마의 돌풍을 잠재운 것으로 분석됐다.

당시 클린턴은 “유세 기간에 유권자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었고 그 과정에서 내 목소리도 찾을 수 있었다”면서 유권자의 감성을 한껏 자극했다.

프라이머리 투표 당일 오바마는 학생과의 미팅을 단 한 차례만 가졌을 뿐이었다.

이명을 요구한 민주당의 한 선거전략가는 “유권자와 악수하는 것 만큼 효과적인 전략은 없다”고 전했다. 이 전략가

는 이어 “힐러리는 남편 만큼 유권자에 대한 애정이 있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오바마는 청중동원 능력에서는 단연 최고지만 유권자 속으로 뛰어드는 노력을 게을리 했다”고 분석했다.



미국 민주당 대선주자 힐러리 로드햄 클린턴 상원의원(뉴욕주)이 12일 리스 베이거스의 판금(板金)노조 훈련소에서 연설을 한 뒤 노조원들과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는 쪽이 효과적이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오바마 측 전략가 데이비드 엑슬로드

는 선거운동의 핵심은 되도록 많은 유권자들이 출마 후보를 직접 보게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어느 후보가 부동층을 끌어 모을 수 있으면 그 후보는 그들을 설득해 자신에게 표를 던지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뉴햄프셔 프라이머리 기간에 오바마 진영은 2만1천명 가량의 유권자가 오바마의 연설을 들은 것으로 집계했다. 이는 힐러리 진영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수치라고 AFP는 평가했다.

미 버몬트주 미들버리 칼리지 정치학과 에릭 데이비스 교수는 오바마 진영에 “경선에서는 경제 등 특정 주제에 대해 이야기 하고 젊은 유권자들이 반드시 투표장을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데이비스 교수는 그러나 네바다주와 사우스캐롤라이나주 경선만 끝나면 미 대선 레이스는 20개 주가 동시 투표를 하는 ‘슈퍼 화요일(2월5일)’ 레이스를 시작하기 때문에 유권자 직접 접촉의 중요성은 감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靑비서실·총리실 조직 축소

인수위 최종 방침 확정...시민사회·혁신관리수석 폐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조직을 축소키로 최종 방침을 정하고, 이를 13일 국정과제 1차보고회에서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에게 보고했다.

이 당선인은 이 자리에서 “내 자리보다는 변하는 시대에 어떻게 하는 게 더 능률적이고 효율적이나, 시대를 앞서가는 것이냐를 생각하는 게 간부와 고위직 공무원의 자세”라며 거듭 슬림화와 효율화를 강조했다.

인수위는 현재 비서실, 정책실, 안보실 ‘3실’ 체제인 청와대 조직 중 정책, 안보실을 폐지하고 8개 수석자리 중 시민사회, 혁신관리수석 자리를 없앨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청와대의 정무기능 강화를 위해

비서실 내에 정무수석을 부활시켜 비서실장 산하에 경제·정무·민정·사회정책·인사·홍보·외교안보 수석 등을 뒀던 현재 ‘3실 8수석’체제를 ‘1실 7수석’ 체제로 재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 수석 자리는 이보다 1~2개 더 줄어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태다.

직급은 현행대로 실장은 장관급, 수석은 차관급을 유지키로 하고, 대변인의 경우 홍보수석을 겸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때 검토됐던 미국 백악관 관리예산처(OMB)와 같은 예산권의 청와대 기관 방안은 채택하지 않기로 했다.

인수위 핵심 관계자는 13일 “국정과제

보고에서 청와대와 총리실 부분이 보고됐다”면서 “청와대의 경우 작고 효율적인 청와대의 모습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총리실의 경우 사실상 책임총리제 개념은 없어지며, 총리 비서실의 민정수석실 등의 폐지와 국무조정실 조직 축소 방안이 최종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핵심 관계자는 “정부의 기본 콘셉트를 작고 효율적인 정부라고 정한 만큼 당연히 청와대에도 적용되는 것”이라면 “내일 보고에서는 ‘국회와 정부의 새로운 협력 모델을 채택하는 것이 세부 과제로 필요하다’는 점도 보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수위는 이와 함께 현재 416개인 각종 정부위원회에 대해서도 전면 정비에 나선다는 방침을 확정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대만 총선 국민당 압승

81석 차지...의석 3분의 2 확보

대만 총선에서 야당인 국민당이 입법원 의석 113석 가운데 72%인 81석을 차지,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다.

대선 전초전이라 불린 이번 총선에서 국민당이 압승을 거둬 오는 3월22일 치러질 대만 총통선거에서도 마잉주(馬英九) 국민당 대선후보가 승리할 공산이 매우 커졌다. 지난 12일 오후 9시30분 현재 개표가 90% 이상 진행된 상황에서 국민당이 3분의 2 이상인 81석을 차지했으며 천수이볜 총통이 이끈 민진당은 27석을 확보, 참패했다. 국민당은 지역구 의석 가운데 61석을 휩쓸었으며 정당별 투표에서도 51.3%를 확보, 비례대표 의석 20석을 배당받아 모두 81석을 차지했다. /연합뉴스

국민당만으로도 3분의 2 의석을 넘겼으며 동맹정당인 친민당 및 무소속 의석을 합하면 4분의 3을 넘게 된다. 단독으로 헌법 개정과 총통 파면을 의결할 수도 있는 의석수다. 지난 2004년 총선에서 국민당이 친민당과 합쳐 과반 의석을 겨우 넘긴 것에서 대약진한 셈이다. 민진당은 지역구 13석을 포함, 모두 27석을 얻어 참패를 면치 못했다. 리덩후이 전 총통이 이끄는 친독립 계열의 대만단결연맹은 한석도 얻지 못했다. 민진당은 수도인 타이베이에서 전패했고 12석이 걸린 타이베이현에서 2석만을 건졌으며 전통적인 표밭인 타이난(臺南)과 가오슝(高雄) 지역에서도 고전을 면치 못했다. /연합뉴스

인수위 “PSI 참여 당장 논의할 사항 아니다”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12일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참여 문제와 관련, “장기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일이지만 단기적으로 당장 논의할 사항은 아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동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PSI 문제가 지난 4일 외교부 업무보고에서 일부는 의의가 있는 사실”이라면서 “외교부가 참여를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의견을 제시하고 일부 참석자도 필요성에 공

감하는 의견도 있었으나 단순히 반(反)테러나 한미동맹 차원이 아니라 전반적인 남북관계의 전략적 여건 변화를 모두 고려해 신중히 접근키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PSI 문제는 내일로 예정된 당선인 업무보고에서도 국정과제에 포함이 안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수하르토 前 대통령 위독

수하르토 전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매우 위중한 상태(very critical condition)”라고 의료진이 13일 밝혔다.

자카르타 소재 페르타미나 병원의 전담 의료진 팀장인 마르조 수비안도노 박사는 “그는 현재 매우 위중한 상태”라면서 “어제보다 상태가 더 악화됐다”고 말했다. 그는 수하르토의 생존 가능성이 50% 밖에 안된다면서 상황이 악화될 수 있다는 점을 가족들에게 알렸다고 말했다. 의료진은 심장, 폐 등 수하르토 전 대통령의 거의 모든 장기의 기능이 저하됐다고 말했다. 수하르토 전 대통령은 심장, 신장, 폐 기능 이상으로 인한 빈혈과 혈압저하 증상으로 지난 4일부터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Advertisement for (주)무등산업 (Mudeung Industry Co., Ltd.) featuring various home appliances like refrigerators, air conditioners, and washing machines. The ad highlights a 'Consumer Satisfaction 1st Place' award and provides contact information: (062) 371-7895 and 011-601-7701.

Advertisement for SONY New BRAVIA TV featuring a customer appreciation event and high-value product sale. The ad includes details about the event dates, prizes, and contact information: 062-522-2000.